

박물관에서 길을 찾다



광주지역 박물관들이 마련한 다채로운 강좌들이 시민들을 찾아가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답사하게 될 보성 조정래 태백산맥박물관 전경.

박물관에서 문화를 만난다 수천년 세월이 이야기가 된다

‘박물관에서 길을 찾다.’ 박물관에서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다. 수천년 세월을 간직한 유물을 보면서 역사를 배우게 된다. 보고 배우는 것을 넘어 듣고 배울 수도 있다. 광주지역 박물관들이 마련한 알찬 강좌들이 시민들을 찾아가고 있다. 그동안 박물관 강좌들은 역사와 미술, 문화, 문학 등 다양한 주제로 마련돼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창’ 역할을 해왔다.

광주지역 박물관, 역사·미술·문학·문화 등 강좌 진행
‘문학 속 호남정신’ ‘중국에 정통하다’ ‘한국의 미’ 등

가장 먼저 시민들을 찾아가는 강좌는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시민과 대학생を対象으로 준비한 ‘제18기 광주민속박물관대학’이다. 8일 입학식과 함께 열리는 이번 강좌는 ‘의향탐구 시리즈Ⅲ-문학 속 나타난 호남정신’을 주제로 모두 12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 된다. ‘문학 속 나타난 호남정신’은 박물관이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진행하고 있는 ‘의향탐구’ 시리즈 마지막 프로그램이다. 소설가 문순태씨는 강좌(문학에 나타난 호남

정신)에서 임진왜란과 일제 강점기, 해방 이후,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건을 다룬 문화작품을 조명한다.

송기숙씨의 ‘복두장군’, 조정래씨의 ‘태백산맥’에 녹아있는 호남정신도 살핀다. 10개 강좌와 함께 목포와 보성 태백산맥박물관 문화답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대박물관은 초강대국인 중국의 실상에 관한 다양한 분석과 해설을 들려주는 강좌를 마련했다. ‘중국에 정통(精通)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20일 첫 강좌 ‘중국역사의 위면과 이면’(이성원 전남대 사학과 교수)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모두 11차례에 걸쳐 열린다.

장준석 전남대 박물관장이 ‘문학으로 자기와 세상을 다스리다’(3월27일), 작가 유광종씨(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부소장)가 ‘중국인의 모략과 지혜’(4월3일), 김병기 워터대 중국어학과 교수가 ‘예화로 피어나는 중국 문자’(4월10일)를 주제로 강의 하는 등 중국 역사, 문화, 문학,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이야기한다.

강좌가 끝나고 이어지는 영화 및 다큐멘터리 상영 시간에는 영화 ‘패왕별희’, ‘변검’, ‘북경 자전거’ 등과 다큐 ‘광동요리’, ‘차마고도’ 등이 상영된다. 수강료는 일반 9만원, 전남대 교직원·대학생·노인은 7만원이다. 문의 062-530-3583.

국립광주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회가 다음

달 17일부터 운영하는 ‘제20기 광주박물관대학’은 인문학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의 미(美)’를 주제로 시대별 한국 미술사를 살펴본다.

한국 선사시대 미술, 고구려 고분벽화, 삼국시대 불상과 석조 미술, 고려시대 불화, 조선시대 궁중회화 등을 각 분야 전문 강사진이 소개한다.

첫 강좌는 다음달 17일 조현중 국립광주박물관장이 ‘한국의 선사시대 미술’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어 ‘고구려 고분벽화의 색채미’(이태호 명지대 교수·4월24일), ‘삼국시대 불상’(곽동석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5월1일), ‘삼국시대 석조미술의 이해’(최인선 순천대 교수·5월8일), ‘고려불화’(정우택 동국대 교수·5월15일), ‘고려 청자의 세계’(최건 전 경기도박물관장·5월22일), ‘고려 금속공예의 멋’(최응천 동국대 교수·5월29일) 순으로 열린다.

마무리 강좌는 영주 부석사 문화유적 답사로 진행한다. 수강료는 일반은 10만원, 국립광주박물관회원은 8만원이다. 수강신청은 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http://gwangju.museum.go.kr)나 교육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문의 062-570-7077.

국립광주박물관은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제7기 광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도 함께 개설한다. 다음달 13일부터 11월23일까지 매달 2차례 운영된다. 문의 062-570-7053.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숲과 도시환영 (Forest and city illusion)’

‘영상숲’ 통해 ‘쉼’ 선물

미디어아티스트 박상화전, 19일까지 롯데갤러리

미디어아티스트 박상화씨는 고집 있는 작가다. 그는 영상 매체와 테크놀러지를 이용한 미디어 작업을 통해 ‘자연’과 ‘문명’이라는 대비되는 테마를 이야기해 왔다.

박씨는 ‘그림의 떡’ ‘Tower of babel’ 등과 같은 초기작에서 현대 물질 문명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이후 주제를 일상적인 소재로 옮겼다. 일상 속 평범한 이야기들을 영상과 비디오 조각 형식으로 제작, 현실에서의 일탈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최근 다시 변신하고 있다. ‘영상숲’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쉼’을 선물하기 시작했다.

광주 롯데갤러리에서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광주롯데창작지원공모 선정작가

박상화-Into the Landscape’ 전에서는 박씨의 새로운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융합그룹 ‘비빔밥’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씨가 강운, 장한별씨와 함께 작업한 ‘Forest and city illusion’은 바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위안을 주는 작품이다.

4면으로 둘러 싸인 16개의 반투명스크린을 통과하는 영상들은 숲과 사계다.

작가는 “전시장이 더 이상 일방적인 감상의 공간이 아니라 작품 속에서 만지고, 거닐고, 상호 반응하면서 작품을 경험하고 사유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12년 광주비엔날레 출품작인 ‘숲, 숲, 숲, 그리고 집’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다. 문의 062-221-1807.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인문학으로 풀어보는 ‘돈’

광주여성재단 매달 한차례 무료 강좌... 13일 첫 강의

광주여성재단은 올해 처음으로 인문학 강의 ‘여성주의와 인문학의 조우’를 진행한다. 강의 주제는 ‘돈’으로 정했다.

돈은 모두들 마음 속으로 갈망하지만, 솔직한 속마음을 드러내기는 또 어려운 존재. 돈에 관한 철학적, 인문학적, 여성주의적 해석을 통해 삶에 대한 성찰을 해보자는 의미로 마련했다.

강의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한차례(둘째주 화요일·일부 강의 시간변경) 열리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첫강의는 오는 13일 오후 2시 박구용(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돈의 철학,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다. 이어 4월 9일에는 하종강 성공회대 노년대학원장이 ‘여성과 돈’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지는 강좌는 ▲내 생의 첫번째 월급(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5월14일) ▲현



박구용 하종강

실과 욕망이 기호, 돈(체화된 광주여대 교수·6월11일) ▲돈의 인문학,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김찬호 성공회대 초빙교수·7월9일) ▲돈과 여성 인권(이재언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8월27일) ▲강수돌(고려대 세종캠퍼스 경제학부 교수·9월27일) ▲버리고 행복하라(전국귀농운동본부 공동대표·11월12일) 문의 062-670-054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형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외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1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